

해외 인턴십 리포트
International Internship Report

일본 진보 언론 및 지식인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인식

신문 기사 및 지식인 기고문을 중심으로

Tanaka Nozomi
Ewha Womans University



일본 진보 언론 및 지식인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인식 - 신문 기사 및 지식인 기고문을 중심으로

1. 서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5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한일관계는 역사인식문제, 영토 문제, 안보문제, 전후보상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8년 10월 13일 한국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등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확정하였고, 일본의 아베정부는 이 판결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한일관계는 전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지난 한국 정부에서 한일관계는 전 분야에서 전면적인 대립관계에 직면하였고, 현 정부 등장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한 제3자(한국정부)에 의한 변제 방식으로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일관계는 다시 관계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 한국 정부의 제3자변제방식에 대해 한국국민들은 6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023년 3월 19일, 스트레이트신문), 일본국민들은 65%가 긍정적으로 평가(2023년 3월 19일, 요미우리신문)했듯이, 양국 간 인식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후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양국 간의 인식도에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있다.

현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개선은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한일간의 관계개선이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지, 오히려 악화시킬지에 대한 예측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첫째, 일본 내의 한국사회에 대한 역사 인식의 정립, 둘째,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에 버금가는 일본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사회의 역사인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역사 교과서 모임의 등장과 역사수정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오히려 대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 이후 일본회의¹로 불리는 우익정치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역사수정주의가 국내외의 정책에 반영되었고, 일본의 역사인식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아베내각의 시기에 미디어분야와 시민운동분야도 정부의 우경화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는 일본 내 풀뿌리 시민민주주의의 우경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전쟁을 경험한 평화세대 중 생존자는 이제 거의 없으며, 60년대와 70년대 일본의 진보적인 사회운동 세대들도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세대교체에 실패함으로써 일본 내의 시민운동과 평화운동, 전후보상운동의 잠재력도 크게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시민민주주의의 후퇴가 가져온 것이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아베정권의 반발이었으며, 이에 대한 일본시민사회 내의 양심적인 목소리가 줄어든 것 또한 한일관계 악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 내 한국의 역사인식 그리고 양국 시민민주주의의 동질성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한일간의 연대민중운동 및 시민운동 연대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교육·계승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한일민중연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일본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첫 번째로 일본의 미디어 중에서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잡지 「세카이(世界)」와 같은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¹ 1997년 결성된 일본 최대 규모의 우파 정치 결사 조직으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두 단체가 통합, 결성된 민간단체이다.

일본의 언론지형은 2012년 아베 제2차 내각 등장 이후 진행된 언론장악정책으로 인해 급격히 우경화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보도도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1970-80년대까지 일본의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객관적이었으며, 아시아의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도하였다. 이는 일본 내의 정치지형이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대 정당구조로 상호 견제하는 소위 55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지식인과 사회운동가, 일반 대중에게 아시아의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아사히신문」과 잡지 「세카이」는 대표적인 리버럴(자유민주주의) 미디어로서 일반시민들의 여론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보수를 대표하는 요미우리 신문도 일부 인용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주로 리버럴을 대표하는 「아사히신문」과 잡지 「세카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지식인 와다 하루키, 무토 이치요우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이들 지식인들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60년대 말 베트남 반전 평화운동, 70년대 김대중 석방운동 등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와다 하루키는 일본의 저명한 지식인이다. 와다 하루키의 광주에 대한 인식은 잡지 「세카이」를 통해서 일본의 지식인, 언론인, 진보적인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80년대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신좌파사회운동을 리드했던 무토 이치요우는 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PARC)를 통해서 일본의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두 지식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당시 일본지식인과 사회운동 계열이 가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정권이 지속되었던 1970-80년대의 일본은 한국의 정보를 해외에 전달하는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본 외국인기자클럽에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었기에 한국에 대한 일본미디어의 보도는 외신들의 보도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분석하는데도 의의가 있지만, 일본미디어 및 일본사회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한일민중연대에 대한 새로운 시점을 제시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

2. 본문

1) 진보 언론의 광주보도 인식의 특징

일본의 광주민주화운동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영화 ‘택시 운전사’(2017년)에서 보이듯이, 독일인 기자 월겐 힌츠페터(1937~2016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가 광주로 들어가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취재하였고, 취재한 기사가 다시 일본으로 전달되어 독일에서 보도가 되었다. 영화의 주제는 독일인 기자의 시점에서 광주문제를 외부로 알린 것과 택시 운전사와의 인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 당시 일본에서는 자유로운 언론보도활동이 보장되었고, 일본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언론보도의 거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일본에 거주중이던 폴 슈나이스(1933-2022년)목사가 힌츠페터 기자에게 광주의 뉴스를 알려주었고 광주 현지 취재를 하게 된 경위가 있었다. 이처럼 당시 일본 내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상황은 매우 빨리 전달되었고, 일본미디어들은 광주민주화운동 다음날인 5월 19일자 신문보도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집중적이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언론 보도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도된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비밀리에 복사되어 거꾸로 한국 내에 반입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이 한국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당시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보도했을까. 일본에 보도된 신문이나 잡지 등을 분석해 보면 당시 일본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에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인식이 보인다.

첫 번째는 ‘광주폭동’이라는 인식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광주사태로 불리며 인식되어 왔다. 한국어 용어로 사태는 폭동·소란·소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며, 광주민주화운동은 1987년 민주화 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변경될 때까지 무질서 상태인 폭동이라는 인식이었다. 일본의 당시 보도에서도 광주사태와 같은 의미로 광주의 반정부폭동(아사히 신문, 1980년 5월 20일), 광주폭동(요미우리 신문, 1980년 5월 22일), [광주 소란(아사히 신문, 1980년 5월 21일) 등의 말이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 초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소요, 소란, 폭동 등의 용어가 사용됨으로서 광주시민들을 민주화운동 주체로 보지 않고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광주사태라는 용어는 일본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표현하는 당시의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이것은 소요, 소란, 폭동과는 다른 성격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부터 김대중, 김지하 등 정치인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해왔던 일본의 미디어와 사회운동 진영이 광주 민중의 주체적인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바로 분석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장하는 성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내의 진보적인 지식인과 시민운동에서는 ‘자유광주’라는 인식이 있었다. 와다 하루키를 비롯한 일본 사회에서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광주에서의 민중의 민주화운동을 자유광주로 표현해 왔다. 자유광주란 광주민주국이라는 인식일 것이다. 이처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사태’와 ‘자유광주’라는 두 가지 인식에 기반하여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과 지식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의 광주민주화운동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진보 언론의 보도내용 분석

가. 「아사히신문」의 보도 분석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에 대한 보도: 김대중탄압, 신군부권력장악, 지역격차의 차별

「아사히신문」에 의한 80년 5월 광주 시위보도의 제1보는 5월 19일 조간(1면)에서 「학생 가두시위 기동대와 충돌」(「学生街頭デモ 機動隊と衝突」)이라는 제목으로 「가두시위에 참가한 학생은 약 6백명, 시내를 시위 행진해 기동대와 충돌, 투석전 끝에 시내 경찰서 1 곳을 습격, 기물 등을 파괴했다」라고 전하며, 이것은 「정부·군 당국의 이번 탄압적 조치에 대한 첫 조직적 저항이다」고 보도했다.

이후 「아사히신문」은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에 관해서 1) 김대중 탄압과의 관계, 2) 신군부의 권력 장악, 3) 지역 격차에 의한 차별 등, 3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첫째, 김대중 탄압과의 관계이다. 아사히 신문은 1980년 5월 18일의 조간(7면)의 제목에서 「서울에 재차 엄동, 민주화 대폭 지연 불가피, 방아쇠는 학생 데모, 충격을 노린 군부」(「ソウルに厳冬再び 民主化大幅遅れ必至 引き金は学生デモ ショックねらった軍部」)로서, 「정부·군 당국은 17일 밤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김대중씨 등 반체제파 리더의 대량연행이라는 높은 강도의 강경책을 실시하였다」며 [이것은 사실상의 쿠데타]라고 보도하였다. (원문:「ソウルに厳冬再び 民主化大幅遅れ必至 引き金は学生デモ ショックねらった軍部」として、「政府・軍当局は17日夜非常戒厳令の全土拡大、金大中氏ら反体制派リーダーの大量連行という考えられぬ強硬策でのぞんだ」として、「これは事実上のクーデター」といえると伝えた。)

「아사히신문」은 비상계엄령의 전국 확대와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김대중의 연행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큰 원인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둘째, 신군부에 의한 군사정권의 연장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아사히 신문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본격적인 보도는 5월 20일의 조간(1면 제목) 「광주에서는 시민폭동 방송국 점거도」(「光州では市民暴動 放送局占拠も」)라는 기사부터이다. 이 기사에서는 신군부에 대한 퇴진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전면에 보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광주에서 최초 학생 시위 행진으로 데모가 시작되었으나, 경찰기동대, 공수부대 등이 학생데모를 격렬하게 진압하였고, 여기에 분개한 시민들이 더해져 신군부 반대, 전두환 타도의 움직임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그 양상을 시민폭동, 방송국 점거, 투석, 광주소란으로 표현해 민주화를 바라는 민의를 지적하면서도 [광주폭동]으로 보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사히신문」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북한 간첩에 의한 내란이라는 한국정부 측의 주장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 격차에 의한 차별 문제이다. 박정희 정권기부터 확대되었다고 하는 지역 격차 문제를 일본의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나아가 일본공산당 기관지 「적기」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역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5월 22일 조간(7면 표제) 기사 「광주의 맥락과 반체제의 전통」(「光州 脈々と反体制の伝統」)에서는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의 압도적 지반인 전라도와 박정희의 지반인 경상도 간의 지역 대립의 양상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전라도가 경상도에 비해 농촌근대화나 공업화 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원문:「光州 脈々と反体制の伝統」のなかで、1971年の大統領選挙での金大中の圧倒的地盤である全羅道と、朴正熙の地盤である慶尚道との地域対立の様相について説明しながら、慶尚道人脈に固められた朴政権時代には、全羅道は農村近代化や工業化に「差別待遇」を受けたとされていたことなどを具体的にあげて紹介している。)」

-북한남침론에 대한 보도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된 원인으로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북한남침론과의 관계를 「아사히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연행에 관한 중간 발표로 김대중과 북한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었지만, 「아사히신문」은 미국 국무부 고관을 인용하여 북한이 한국의 혼란을 이용하려는 징후는 없다고 부정하였다.

-광주폭동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의 인식의 변화

「아사히신문」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도할 때 초기부터 광주폭동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신문보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는 광주폭동(暴動)과 광주소란(騷亂)이다. 이외에도 시민폭동, 반정부폭동, 광주의 소동, 광주소란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고 내란상태라는 표현도 나온다.

「아사히신문」 보도에서 민주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기사에 등장한 것은 1980년 5월 25일 조간이다. 또한, 5월 28일의 사설 「광주는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는지」에서 「민주화를 바라는 민의」를 저버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7월 13일 조간의 「아사히신문」에서는 일본에서 열렸던 광주 추도 집회의 모습을 보도했다. 이것은, 당시에 현지인 광주를 포함한 한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추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도쿄에서 먼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아사히신문」은 당시 일본의 진보적인 일간지로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많은 보도를 내놓았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폭동과 소동 등의 표현으로 혼란의 한국사회를 재현하는데 일조했다고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의 미디어지형보다도 훨씬 객관적이었고, 정론보도의 시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의 시민사회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아사히신문」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나. 잡지 「세카이(世界)」의 광주민주화운동 보도

- 「T·K생」 연재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의 연장선에서 보도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적인 잡지 「세카이」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군사정권의 탄압을 폭로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카이]는 'T·K생'이라는 필명으로 1973년 5월호부터 88년 3월호까지 15년간 거의 매호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연재를 기획하였고, 일본의 시민운동과 지식인 사회는 이 기획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의 현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져 있다. 연재 종료 이후 15년이 지난 2003년에 'T·K생'은 지명관으로 밝혀졌다.

[표 1] 잡지 「세카이」가 보도한 80년 광주기사 리스트

숫자는 발행년, 호

<p>朴正熙暗殺~光州事件 以前の時期 (1979年10月26日~ 80年4月) * 『世界』は発売日の 関係で80年6月号まで 含めた。</p>	<p>79年12月「ドキュメント金大中拉致事件 民衆蜂起」編集部 80年1月「韓国からの通信-革命への道」T・K生 「共同報告いまこそ対韓政策に轉換を」青地辰ら19名 「韓国の新事態と日本の朝鮮政策」木村俊夫、安江良介 「ドキュメント金大中拉致事件 朴大統領の死」編集部 「『朴暗殺』と日本の新聞報道」原田螢 80年2月「韓国からの通信-反動の嵐吹けども」T・K生 「開発独裁と政治体系危機」高橋進 「韓国民主勢力の主張」(3・1運動61周年記念国民連合宣言) 80年4月「韓国からの通信-政治の彼方へ」T・K生 80年5月「韓国からの通信-ソウルの春」T・K生 80年6月「韓国からの通信-黒色の窓は除かれて」T・K生</p>
---	--

<p>光州事件發生の時期 (1980年5月 ~80年12月)</p>	<p>80年7月 「自由光州の制圧に想う」 和田春樹 80年8月 「韓国からの通信-暗闇の記録」 T・K生 「1980年代の座標-自由、正義、統一の具現のために-」 金大中 「金大中氏抹殺の陰謀と加担者たち」 和田春樹 「全斗煥体制と国際論調-外報部のデスクから-」 猪狩章 80年9月 「韓国からの通信-沈黙の都市の中で」 T・K生 「全斗煥氏の冒険と日本外交」 山本剛司 「全斗煥体制の対日報道統制-日本はどう対応するのか-」 衣笠新作 「光州の真実-海外の友人へ伝える-」 編集部 「ルポ 祖国光州の死者の霊前に-東京での光州犠牲者追悼集会から-」 宮田浩人 80年10月 「韓国からの通信-運命の人・宿命の人」 T・K生 「全斗煥体制と金大中氏の裁判-問われている日本の今日と明日」 和田春樹 「現地からの報告 光州惨劇の真相はこうであった」 光州市のキリスト教関係者 80年11月 「韓国からの通信-敗北の日」 T・K生 「共同報告 金大中氏裁判と日本-三たび対韓政策の転換を求め-」 80年12月 「韓国からの通信-恐ろしい真実」 T・K生 「共同報告 金大中氏裁判と日本」 (11月号の続き) 「日韓軍事提携の現状」 前田康博 「韓国学生の声-三つの宣言」</p>
--	---

[표 1]과 같이 잡지 「세카이」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연재에서 광주를 기획한 기사는 1980년 8월호 「어둠의 기록」이다. 이 기사에서 T·K생은 「이 모든 것(광주를 뿌리까지 뽑아내려는 것)을 그들(전두환 일파)은 사전에 계획했다. (중략) 광주를 선택한 건 김대중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고 서술했다. T·K생은 친구인 저널리스트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적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의 탄압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세카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 외교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세카이」 1980년 9월호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침묵의 도시 안에서」에서, T·K생은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경제 상황은 급전 직하의 악화 일로’, ‘인플레이션은 50% 이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 ‘대기업의 시장 지배는 하루에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황을 고발하고 있다.

-자유광주를 실현하려는 민주화운동

동시기 「아사히신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 광주소란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잡지 「세카이」는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직후부터 민주화를 지향하는 투쟁(民主化を目指した闘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카이」가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진보적인 지식인 와다 하루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와다 하루키는 「세카이」 1980년 7월호에 「자유광주를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自由光州の制圧に想う」)라는 투고를 통해서 드디어 광주반란은 잠시 동안 ‘자유광주’, ‘광주민주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자유광주라는 성격을 규명한다.

이처럼 잡지 「세카이」는 아사히 신문의 광주폭동이나 광주소요라는 인식과는 달리, 와다 하루키의 자유광주로 상징되는 소위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속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식하고 있었다. 와다 하루키가 제시한 자유광주의 의미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지만, 혁명 광주와는 다른 의미로 명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3) 광주를 지원한 단체 및 지식인들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원한 일본내의 단체들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같은 재일한국인 및 재일조선인(당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국인들에 대한 호칭) 그룹, (2)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을 비롯한 노동운동과 평화운동, 그리고 진보적 시민운동 및 정당운동의 그룹, (3) 잡지 「세카이」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과 연결된 그리스도인 단체, (4) 와다 하루키, 무토 이치요우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그룹이다.

(1) 한통련 및 총련과 같은 재일한국인 및 재일조선인 그룹 등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빠른 시기에 보도를 하고 대규모 규탄집회를 기획하는 행동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 내에 있는 재일한국인 그룹의 광주에 대한 연대운동은 일본을 통해서 전세계 한인들과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들 그룹은 대부분 김대중 구출 운동으로 수렴되었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2) 총평을 비롯한 노동운동과 평화운동, 그리고 진보적 시민운동 및 정당운동의 그룹은 단순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보다는 대부분 한국의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형태의 대중집회가 많았다. 군사적 진압이나 폭력에 반대하는 단식투쟁 등 한국에 대한 시민사회의 연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면의 제한과 연구 시간상의 문제 그리고 역량의 한계도 있기에, (3)잡지 「세카이」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과 연결된 그리스도자 단체, (4)와다 하루키, 무토 이치요우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소 요코(80년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미디어 보도와 일본사회의 한국재인의 기본구조: 광주사태와 자유광주의 2개의 인식의 배경을 중심으로, 2020년, 계센여학원대학대학원 석사논문)의 논문을 활용해서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및 활용하고자 한다.

-진보적 지식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東京大学名誉教授)의 ‘자유광주론’

와다 하루키 교수는 러시아·소련사, 조선사, 북한사를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이지만, 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화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일본기독교협회의 긴급회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집회 및 여론전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와다 교수는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난 80년 5월 17일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17일부터 81년 1월 1일까지의 일지는, 「한국으로부터의 문제제기-함께 생각하기」 韓国からの問いかけ-ともに求める』(사상의 과학사, 1982년)에 실려 있다.

와다 교수는 「20일 광주에서 학생·시민의 시위가 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실렸다. (생략) 전국을 제압하는 것이 쿠데타의 진압방식. 서울에서는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테모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하였다.

21일 긴급회의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에 이어, 와다 교수가 참여한 한일연대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긴급 성명은 와다 교수가 5월 21일 밤 원안을 쓰고,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였고, 시미즈 시치히사가 읽었다.

와다 교수는 5월 27일 광주가 공수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된 다음날인 28일, 잡지 「세카이」로부터 원고를 의뢰받고 그 날 바로 원고를 작성했다. 그 때 와다는 원고의 제목을 「자유광주의 제압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정했다.

와다 교수는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은 계속 비폭력적인 운동이었다. 그런데 광주에서 무기를 들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였다. (중략)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기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즉, 광주의 항쟁은 좌익운동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굳이 자유광주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유라는 것은 정치의 세계에서는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와다 교수는 「이(광주항쟁)는 민주주의를 근거로 하는 운동이고,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자유로서 기인한 투쟁이다.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있었다. 이 항쟁은 (전두환)쿠데타 정권과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자유광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와다 교수가 참여한 한일연대위원회와 긴급회의,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이하 정평협) 3자의 제휴로 김대중 구명운동이 시작됐다. 와다 교수는 「한국의 운동으로 일본 속에서 일어난 운동도 여러가지 있었지만, 아마 이 운동만큼 열심히 한 일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평, 그리고 한민통 운동 등이 있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 27일에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후 일본의 한국민주화운동은 김대중 구명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간다.

와다 교수는 「한국에서 광주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만, 일본에서는 민주화 운동 전체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으며, 「광주의 저항도 민주화 운동 전체 역사의 일부이다」라고 서술했다. 또한, 와다는 「민주화운동은 1987년 전국에서 샬러리맨도 참여한 운동으로 승리를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좌파운동의 리더 무토 이치요우(武藤一羊)의 ‘민중혁명론’

일본의 신좌파운동의 대표적인 리더인 무토 이치요우(武藤一羊, 피플플랜연구소운영위원)는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의 국제부를 담당했고, 이후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이하 PARC)의 창립멤버로서 활동해 왔다.

무토 운영위원은 PARC가 발행한 「AMPO」 논문 「우리는 광주민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80년 5월호)에서 1980년 5월 광주민중의 결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논문에서 무토 운영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이 아닌, 민중봉기, 민중혁명으로 파악했다. 무토 운영위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6일 간의 자유광주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그 자유광주는 와다 교수가 의미하는 자유광주가 아니라, 민중혁명으로서의 자유광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토 운영위원은 한국 민중이 일어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중봉기에) 에너지를 느꼈다기보다는, 대단한 충격이었다. 놀라웠다. 그런 생각은 나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충격을 기록하고 있다.

무토 운영위원을 포함한 일본의 전후 신좌파, 또는 좌파지식인들에게도 광주민주화운동은 놀라움과 충격이었다. 민주주의 국가 일본과 달리 근대화와 민주화가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한 군사독재국가 남조선이라고 인식해왔던 곳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70년대 초반 이후 일본내의 신좌파들은 이미 국가권력과 자본에 패배하고 민중혁명의 길이 아닌 우치케바(상호내부폭력)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운동의 패배와 혁명의 좌절에 쌓여있던 신좌파 및 좌파운동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혁명광주는 실패한 민중혁명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토 운영위원은 1980년 7월부터 81년 초에 걸쳐서는 「『김대중을 죽이지 말아라』 운동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전개되어, 국제 여론의 압력과 함께, 일본 정부와 전두환 정권에 영향을 주고, 확실히 효과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토 운영위원은 광주의 민중결기의 의미가 김대중을 구하기 위한 단순한 의미로 보여서 지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당시 일본의 사회당을 비롯해서, 신좌파세력들도 반공국가로서의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한국]이라고 괄호를 쓰면서 고유명사가 아닌 특수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다. 사회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과의 교류를 추구했지만, 신좌파세력들은 북한도 소련식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하면서 비판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무토 운영위원회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만났던 것이다. 와다 교수는 광주를 자유광주로, 한국민주화운동 중 하나의 큰 사건으로 직감했다. 무토 운영위원회도 광주를 똑같이 자유광주로 표현했지만 민중이 봉기한 민중혁명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및 사회운동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미디어나 정부와는 다른 시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의 시민사회가 한국에 대한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을 제공하였고, 일본 내의 외국 미디어들도 한국의 신군부를 비판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3. 결론

이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전후 역사 속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본 미디어의 보도 및 시민단체, 진보적 지식인들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한일시민연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한일간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본 사회의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확인시킴으로서 한일시민연대의 방향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한 직후부터 속보를 통해서 광주의 상황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초기에는 광주에 대해서 광주폭동, 광주소요 등과 같은 무질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민중봉기, 민주주의의 공동체 등 민중항쟁의 성격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한국이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고, 혼란 속에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본사회의 선입견과 차별의식이 그 근거에 깔려있다고도 보인다.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이 별로 없는 일본사회는 한국 내의 민중봉기나 시민들의 저항을 무질서로 인식하였다. 또한 청산되지 못한 식민주의에 의해 한국이 일본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뒤떨어져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와다 하루키 교수나 무토 이치요우 운영위원처럼 민주화운동의 연속성과 민중항쟁로서의 그 성격을 이해하는 진보적인 시각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일본 시민사회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현재도 한일시민연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본 시민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배워야 한다는 자기반성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본사회 및 일본미디어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선입견에 의한 보도가 많았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보다도 훨씬 저널리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고자 하는 의식은 있었다. 이러한 일본미디어의 신속하고 다양한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 신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관점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신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광주문제를 전달하게 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었다.

민주화운동 당시 일본을 통해서 전세계로 한국 문제가 공유될 수 있었던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볼 때 한일간의 상호협력과 상호인식을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수많은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의 민주화에 공헌한 측면도 있다. 일본 시민사회의 연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것은 한일시민연대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수 우경화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어 가는 일본시민사회 자신의 역사를 성찰해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일시민연대운동의 역사에 아직 연구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해당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터부시 되었기에, 한국에서 출판되지 못한 서적들이나 기록들이 다수 일본에서 출판되기도 했다. 일본 각 미디어의 특파원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나 한국민주화운동을 기록하여 출판한 서적들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 내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평화운동그룹-총평, 국철노동조합, 사회당, 공산당, 신좌파, 시민운동, 평화운동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운동의 기록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필자도 향후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4. 참고자료

일본어서적

- 徐仲錫. 『韓国現代史60年』 明石書店、2008年。
- 文京洙. 『韓国現代史』 岩波書店、2005年。
- 文京洙. 『新・韓国現代史』 岩波書店、2015年。
- 池明観. 『T・K生の時代と「いま」』 一葉社、2004年。
- 池明観. 『「韓国からの通信」の時代』 影書房、2017年。
- 金大中. 『金大中自伝 I 死刑囚から大統領へ～民主化への道』 岩波書店、2011年。
- 金大中. 『金大中自伝 II 歴史を信じて～平和統一への道』 岩波書店、2011年。
- 猪狩章. 『光州80年5月—つかの間の春の虐殺』 すすさわ書店、1980年。
- 『世界から』 編集委員会・日韓調査運動 『韓国1980年5月光州民衆の決起』 アジア太平洋センター、1980年。
- 統一評論社編集部編. 『光州市民蜂起の記録 この民生かす統一よ来たれ』 統一評論社、1980年。
- 富村順一. 『血の光州・亡命者の証言』 JCA出版、1980年。
- 石井清司. 『ドキュメント金大中裁判』 幸洋出版、1981年。
- 和田春樹. 『韓国からの問いかけ ともに求める』 思想の科学社、1982年。
- 和田春樹・高崎宗司. 『検証日朝関係60年史』 明石書店、2005年。
- 富山妙子. 『アジアを抱く—画家人世記憶と夢』 岩波書店、2009年。
- 韓国問題キリスト者緊急会議編. 『韓国民主化闘争資料集1973~1976』 新教出版社、1976年。
- 黄哲暎. 『光州五月民衆抗争の記録—死を越えて時代の暗闇を越えて』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1985年10月。
- 全南社会運動協議会. 『全記録光州蜂起：虐殺と民衆抗争の十日間80年5月』 柘植書房、1985年11月。
- 全南社会運動協議会. 『新版全記録光州蜂起80年5月—虐殺と民衆抗争の十日間』 柘植書房新社、2018年。
- 真鍋祐子. 『光州事件で読む現代韓国 増補版』 平凡社、2010年。
- 武藤一羊. 『戦後レジームと憲法平和主義』 れんが書房、2016年。
- 李美淑. 『「日韓連帯運動」の時代』 東京大学出版会、2018年。
- 和田春樹・石坂浩一編集. 『岩波小辞典現代韓国・朝鮮』 岩波書店、2002年。

日本語 論文・記事

佐相洋子、恵泉女学園大学社会・人文学会編、『80年5月光州事件のメディア報道と日本社会の韓国再認識の基本構造：「光州事態」と「自由光州」の二つの認識の背景分析を中心に』恵泉女学園大学、2020年。

中林栄、「『ソウルの春』はうたかた？光州事件の背景」『世界週報』時事通信出版局、1980年、6月号。

武藤一羊、「われわれは光州民衆とともに生きともに歩むのか」『光州民衆の決起 韓国1980年5月』アジア太平洋資料センター、1980年7月。

西岡力、「日本の新聞が伝えた光州事件」『朝鮮研究』202号、日本朝鮮研究所、1980年8月。

真鍋祐子、「光州事件—孤絶の10日間—」『歴史評論』校倉書房、2011年10月号。

崔晶基、「光州民衆抗争と韓国の社会運動—1980年代初・中盤の学生運動を中心に—」

『歴史評論』校倉書房、2011年10月号。

鄭根植、「韓国の民主主義、光州抗争、移行期正義」『歴史評論』校倉書房、2011年10月号。

岡本厚、「光州事件と日本の報道」『歴史評論』校倉書房、2011年10月号。

林雄介、「光州事件を知るために—関連基礎知識解説—」『歴史評論』校倉書房、2011年10月号。

ソウル新聞、「日本の言論の偏向した韓国観—彼らの内政干渉的な傲慢に警告する—」

『歴史評論』校倉書房、2011年10月号。

藤高明、「姿を消した『ソウルの春』の主役たち」『法学セミナー』日本評論社、1980年8月。

宮崎繁樹ほか、「光州事件と軍事政権の行方」『法学セミナー』日本評論社、1980年8月。

金哲岳、「韓国の民主主義はどうなっているか」『現代の理論』176号、現代の理論社、1980年9月。

西岡力、「光州事件関連文献案内」『朝鮮研究』208号、日本朝鮮研究所、1981年3月。

溝江昌吾、「韓国—光州事件から1年」『朝日ジャーナル』朝日新聞社、1981年5月29号。

武藤一羊、「光州決起は日本社会に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影響を与えたか」『東アジアの冷戦と国家テロリズム第4回シンポジウム』2000年。

金明仁、「光州事件とは何だったのか—韓国民主化の敵としてのアメリカ、そして韓国の今—」

『環』25号、藤原書店、2006年春。

関賢貞、「5・18民衆抗争と日本の言論—言論を通して見た日本政府と市民社会の5・18」『光州民衆抗争30周年記念特別シンポジウム』（2010年4月30日～5月2日）冊子。

한국어 논문·서적

이미숙. 「1980년 ‘일한연대’활동의 성격과 의미: 일본 시민사회의 광주 5·18 ‘김대중 구명운동’자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제19권 4호), 2019.

송현경. 「서평 | 5·18민주화운동과 언론투쟁”광주”를 보도하고 강제해직된 717명의 기자들」, 내일신문, 201.

허윤철, 강승화, 박효주, 채백. 「한국 언론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담론~동아일보의 보도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2012.

임병도. 「1980년 5월, 언론은 “광주”를 어떻게 말했나? -광주사태가 전두환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라고 보도했던 외신」, 진실의 길, 2015.

조성호. 「80년 광주, 내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그날의 피맺힌 절규와 통곡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 미디어오늘, 2017.

조희연, 이영채. 「일본탐방-시민사회운동과 지식인을 만나다」, 아시아문화커뮤니티, 2016.

잡지

『歴史評論 特集光州事件の30年』校倉書房、2011年10月号。

『世界』岩波書店、1980年7月号~1988年9月号。

신문

『朝日新聞』1979年10月~87年6月。

『読売新聞』1979年10月~87年6月。

해외 인턴십 리포트
International Internship Report

발행일 2023년 12월 11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